

3장: 성서 - 전통의 심장

기독교는 성서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서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그러나 성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성서 문자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이해를 제공해준다.

성서에 대해서 역사적(historical), 은유적(metaphorical),

성례전적(sacramental)으로 이해한다.

* 역사적 산물로서의 성서

- 성서는 고대 이스라엘과 초기 기독교운동이라는 두 개의 역사적 공동체의 산물이다.
- 성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증언이다.
- 성서는 인간의 산물로서, 상대적이며 문화적으로 조건지워진 것이다.
- 성서는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접근방법은 성서의 역사적 맥락(historical contex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은유의 진리

- 은유는 그 언어의 문자적 의미 이상(more-than-literal meaning)을 뜻한다.
은유 또는 암유라고 말하는 metaphor의 헬라어 어원은
meta (behind/over) + *pherein* (bear/carry)
- 은유적 언어는 “하나의 보는 방식”
- 성서에 대해 은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1. 성서의 언어 상당 부분은 은유적인 언어들.
 2. 성서는 역사적 기억 + 은유적 이야기
<Theology is poetry plus, not science minus.>

* 성례전으로서의 성서

- 성례전이란 거룩함을 전달해주는 눈에 보이는 매개물(visible mediator)
- 신성함으로 건너가는 다리
-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씀은 성례전이 되어,

이 땅의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서와 기독교인의 삶의 관계

역사적/은유적/성례전적 접근방법으로 성서를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신앙의 관계적인 의미를 강조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변화되는 차원을 강조

글쓰이의 문제 제기

변화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성서 문자주의

생각해보아야 할 질문

성서 문자주의와 나의 신앙 현주소는?

역사적 산물로서의 성서를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은유는 무엇인가?